

### 서울시의회 성흥제 의원, 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의무화... 제도적 기반 강화



서울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흥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저조했던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연평균 2,748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지만, 신기술 적용은 건수 기준 6.02%, 금액 기준 2.14%에 불과했다.

특히 신기술 지정 건수도 전체 특허 대비 0.3%에 그쳐, 기술 개발은 이뤄져도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공사비의 4%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신기술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신기술개발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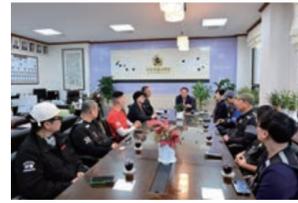
한정했던 참여 주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가 지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성흥제 의원은 "서울시는 기술력과 예산이 충분하지만, 기존 조례는 권장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현장까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기술개발자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 '배달플랫폼 종사자'와 소통의 시간 가제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9월 10일(수) 서울시의회에서 배달플랫폼 종사자들과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확대'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플랫폼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0여 명과 서울시 노동정책과 취약노동자보호팀 관계자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종환 부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누구보다 현장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이분들이 서울 전역에서 참여한다면 더욱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 중 20여명의 '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위험 요소(도로 파손, 쓰러진 가로수, 범죄 징후 등)를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안전 교육 인원 확대 △안전지킴이 인원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지만,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 중 휴식이 어려우므로 폭염·한파 시에는 가까운 커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음료 쿠폰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플랫폼 기반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며 "서울시의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 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

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비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라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으로 "예탁금 필요성과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혈세를 쌓아두는 방식보다,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필요 시 재난 대응이나 긴급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립이 과도하면 당장의 현장 사업 예산을 제약할 수 있어,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민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이용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은(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회)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주문했으며,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현장에서 AIDT(AI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에 관해 고등학교 재학

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AIDT(AI디지털교과서)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포털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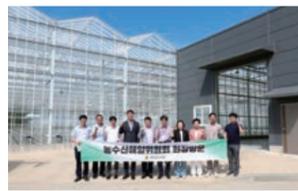
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안교육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 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봉 기자

### 농수산해양위, 부여·논산지역 농수산시설 방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이하 농수해위)는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여와 논산 지역의 농수산 핵심 시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관리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맑은 물은 도민의 건강과 농수산업의 핵심 자원"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 농수산업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예산·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지역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관리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포털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관리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포털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 인천시의회 유경희 위원장,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

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が必要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

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청정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제30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2025.9.19 ~ 9.21 일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

광주시 GCCF 광주시문화재단 | 문의 | 1522-0338

**2025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

KOREA FOREST EXPO 2025

2025.10.18(토)~21(화)

경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숲